

80년대 한국청소년의 종교관

—종교성향과 근대화성향은 유관한가?—

심재룡*

- | <目次> | |
|------|-------------------------------|
| I. | 돌다리 두들겨보기 : 이론적 고찰 |
| 1. | 종교와 한국사회의 변동 |
| 2. | 한국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 |
| II. | 한국 청소년의 종교성향 : 조사 분석 및 촌평 |
| 1. | 기존연구의 소개와 평가 |
| 2. | 1983년 전국조사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분석 |
| (1) | 종교성향과 근대화 성향 |
| (2) | 인생관을 둘러싼 신구 세대의 비교 |
| (3) | 종교집단에 대한 태도 |
| III. | 요약 : 돌다리의 실상과 허상 |

철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이 연구의 계획단계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전후 세대 한국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이념문제에 관한 연구영역별 배분은 “사상, 이념”이었다. 그러나 두 개념의 외연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그에 따른 개념 규정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연전에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한국인의 종교의식조사에 조그만 몫을 거둔 적이 있고, 평소에 한국불교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심이 있어왔던 것에 만용을 내어, 출지에 “80년대 한국청소년의 종교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출문을 초하게 되었다. 개인적 독백 아니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시사평론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험적 조사자료의 분석에 앞서서 이론적 정초를 다져불리는 군더더기 말들을 주섬주섬 담아 본다. 워낙 관심은 있고서도 정작 어떤 틀에 의지하여 말문을 열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전혀 무지백지임을 고백하는 방편인 것이다. 본론인 종교의식의 분석조차 사회학적 조사방법론이나 그 통계처리의 과학적 요령도 모르는 터에 무슨 망발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렵기 만하다. 다만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및 교육자의

* 서울大 人文大, 哲學

입장에서 걱정과 희망을 담는다.

I. 둘다리 두들겨보기 : 이론적 고찰

한국의 전통사상은 대부분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유교, 불교, 도교 등 중국 및 인도에 연원하는 소위 동양의 삼대종교와 그 기층에 자리잡은 소위 한국적 세계관이라고 일컬은 무교로 이루어져 있다. 전후세대들도 한국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세대에게만 독특하게 공유되는 경험의 특이성 때문에 보통 기성세대의 전통적 가치관과는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장래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제까지 전통적 가치규범으로 묶여진 기성세대에게 어느 정도 위화감을 느끼게 하리라는 기우가, 4·19를 전후한 세대논쟁 이후 5·16, 5·17 등 역사의 격변과 근대화의 기치 밑에 산업화, 도시화라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기성세대 사이에 은연중 퍼져 온 지오래다. 그동안 일백년 내지 이백년의 선교역사를 지닌 서양에 연원한 기독교 신구교의 한국정착은 다만 청소년세대에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신구세대의 가치관의 차이에 과연 전통종교와 서양종교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60년대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입장에 있던 필자가 이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전후세대의 가치관을 운위하게 되었으니, 가치관과 세대차이는 다년생 철학적 문제의 하나인가 보다. 그러면서도 그 차이의 실질적 내용은 조사당시의 현재에 있어서 매양 새롭게 규정되는 양하여 이런 연구의 일희성 내지 시한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세대차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동은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실증과학의 시한부 연구대상인가, 아니면 범사회적, 초시간적 진리 주장을 함유하는가? 이처럼 큰 문제는 친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 연구의 주제에 한정하여 80년대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성세대와의 종교관의 차이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론적 가설에 기초하고 있는가는 따져 봄직하다. 우선 한국사회는 과연 세대별로 뚜렷히,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질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세분하여도 우리의 논의를 번체하게 할 터이기에, 한국사회가 중뿔나게 다른 사회와 달리 세대별 차이

가 두드러지는 사회인가, 예컨데 서구 여러 나라 또는 같은 중국문명권의 영향 밑에 지난 수천년을 살아온 일본 또는 중국과도 달리 유달리 나이를 따지고 역할을 구분하며, 그런 가운데 사회적 통합이 이룩되는 그런 사회인가 아닌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사회성원들은 세대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따라서 이를 밀받침 할 다른 가치관을 지닌다는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그 가치관 가운데서 종교가 지닌 비중이 기성세대와 신진세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경중의 차이가 있는지, 또 더 큰 문제로 종교와 일반적 사회변동과의 연관고리에 관한 가설도 다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의 하나다.

아마도 종교사회학의 실질적 관심은 역시 종교와 사회변동에 있는 모양이다. 같은 제목의 단행본이 한국에도 두 권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관심의 치열함을 알 수 있겠다(정재식, 1982; 권규식, 1983). 아무튼 이런 논의들은 그렇다고 해서 종교사회학만의 연구대상, 논의대상이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신분석학, 종교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어느 분야에서도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 가설들에 관해서만 “돌다리 두들겨 보기”식의 겸검을 수행해 보련다.

1. 종교와 한국사회의 변동

아무래도 Max Weber와 Karl Marx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종교와 사회변동을 논할 수 없다. 저들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내놓자 함이 아니다. 저들의 학문이 Freud와 더불어 금세기 인류에 끼친 영향은 동서를 막론하고 아직도 그 끝잔 턜을 모른다. 특히 남북한간의 이념분쟁이나 근대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전통사상의 공과논쟁이 모두 그 기본적 이론의 틀을 Weber 아니면 Marx에게 힘입고 있는 한국 학계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의 세속적 금욕주의와 직업의 합리적 선택관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유교의 전통윤리에도 적용시킬 수 없을까? Weber 스스로 동기와 행동에 관한 그의 포괄적 문화변용이론을 근대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화사회에도 적용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비서구사회의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문화비교론적 관점에서 여러모로 검증하려는 산발적인 시도가 있었다. 한국의 사상사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극히 초보적

인 전통종교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여부논쟁을 참고로 예시하여 종교와 한국 사회의 변동에 관한 이론을 겸검해 보자.

우리나라는 해방을 전후하여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유교의 전통윤리가 산업발전에 끼친 공과에 대하여 완전 일치되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Weber의 이론을 무조건 따르면서, 유교의 전통윤리에는 합리성을 결한 권위주의 전통과 노동을 경시하는 양반—문약한 사대부의 좌식 습관때문에, 유교사회에서는 산업능력이 저하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 비슷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의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사정은 180도 전환하여 유교적 합리주의와 교육열에 힘입은 우수한 인력들의 집단지향적 태도가 바로 아시아 유교권 신 Hong 공업국들의 공통된 정신적 전통이라는 또 하나의 Weder식 주장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있다. 엎어치나 메어치나 종교가 사회변동의 유력한 동인에 된다는 Weber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어느 특정 종교의 어느 특정 교리 아니면 특정 조직이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구체적 세부요목에 있어서 활가활부가 거론될 뿐이다.

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당위론적 연구로 해방직후 1948년에 출간된 현상윤의 <조선유학사>가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유학사상의 공에는 군자학의 면역으로 동방예의지국이 됨에 부끄럽지 않은 의젓한 백성을 키웠음과 인륜도덕의 송상이나 청렴절의의 존중 등 모두 도덕적 가치의 선양을 들었으나, 그 죄로서 사대주의적 모화사상, 당쟁의 벤번, 가족주의적 온정주의의 폐, 계급적 서얼차대 및 남존여비, 중문천무로 인한 문약의 폐, 형식과 이름을 중시하는 상명주의, 지나친 복고사상과 더불어 산업능력의 저하란 8개 죄목을 나열하고 있다. 그중 제6조 “산업능력의 저하”를 기술평가한 항목을 읽어보자.

“유교는 사농계급에 비하여 상공계급을 천시하였다. 이것은 원래 사농은 양심을 지키고 충실히 힘쓸에 반하여, 상공은 모리를 힘쓰고 기만을 일삼는다 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말류의 폐는 차못 심한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인들을 시경배라 하고 공장들을 공색이라 하여 통혼을 거절하며, 사교장례에서 동열에 참가하는 것을 혐피하였다. 또 군자는 야인을 다스리고 야인은 군자를 양한다는 관념에서, 사인이나 양반계급은 직접 산업에 종사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돈чин목족이라는 대가족주의의 관념에서 파생한 의회심은 인민으로 하여금 놀고 먹기를 좋아하게 되어 놔타의 습관이 국풍에 미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자연 국민의 산업

에 대한 능력과 열의가 저하하고 산업이 괴폐하며, 인민의 생활이 곤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저 삼국이나 고려시대의 친란하였던 공예가 이조에 와서는 여지없이 쇠퇴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현상운, 1982).

좀 장황한 감이 있으나 그대로 원문을 인용한 것은 아직도 유교에 대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 이런 류가 아닌가 하여서이다. 그러나 4.19 학생의 거에 뒤이은 교수단시위행렬에 앞장서서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쳐들던 고려대학교의 이상은 교수는 1960년대 산업화, 근대화의 역사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에서였던가, 아무튼 현상운교수가 죄로 지목한 대부분이 유교의 본래적 특성이 아닌 한국유학의 말폐임을 역설하면서 산업 능력에 관하여 유교의 죄를 다음과 같이 동방문화의 죄로 슬쩍 돌린다(이상은, 1966 : 23).

“한 마디로 말하면 유교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산업개발이나 기타 흥리사업으로 국부를 증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의 적당한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여 서로 안분수업—자기분수를 지키어 생업에 종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1966년 11월, 동국대학교 주최, 「한국근대화의 제문제」 세미나 중 “유교의 이념과 한국의 근대화문제”를 참조). ‘취령지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돈모으는 목적으로 정치를 하면, 아래서 백성도 따라서 서로 재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회가 된다 해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사람마다 다 탐욕하는 것이므로 재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의 욕망은 한도가 없으므로 그 싸움도 한없는 상호의 경쟁이 될 것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가 생기어 사회의 불평등(불의)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이니 자연히 상공업을 장려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가 산업능력을 저하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교의 정치이상이 서구근대와 다른 까닭이요, 경쟁이 아니라, 안정평화를 회구하는 동방문화의 연원에서 유래된 결과이다.”(이상은, 1966 : 14).

이상은 교수는 산업저하와 유교와의 관계를 슬그머니 동방문화라는 구름 같은 비실체에 슬쩍 떠넘겨버리는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듯싶지만, 결론에 이르러 솔직히 “근대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혁선생의 8개죄목 중 오직 제 6의 항목인 <산업능력의 저하>만이 참말로 유교의 본질에서 부터 유래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이상은, 1966 : 19).

산업능력의 저하를 놓고 한국의 전통적 종교이념인 유교와 해방 이후 줄곧 우리의 뇌리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근대화 이념과의 조화 및 상충관계를 종교와 사회변동과의 관계의 하나로서 예시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탈산업화 후기 산업화사회로의 변화를 예전하는 마당에 공해와

자연과 과학 및 인류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 사상과 산업화의 관계에 대한 Weber식 주제를 노래하는 학자들은 끊임 줄 모른다. 이제는 신흥공업국가의 대열에 끼었다는 홍콩, Singapore, 대만, 남한을 두고 영국의 Roderick Mac Farquhar라는 친구가 위의 주장과 정반대의 논조를 편다. 80년대 “한강의 기적” 속에서 성장하고 “경제발전의 지상목표”를 인생관의 전부로 건전한 국가관의 하나로서 주입받은 요새 청소년들에게 귀가 솔깃한 발언이요, 유교전통의 중압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던 기성세대에게도 파천황의 희소식으로 들릴 법한 이 친구의 주장을 들어보자. 전통적 유교식 합리주의는 그 구성원들로서 권위에 대한 집단적 귀속감이 있고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잘 교육받은 산업역군들을 배출함으로써, 이슬람사회와 달리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식 발전 모델을 따르지 않고서도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 과연 어느 누구의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난감하다.

본인은 생전 처음 지난 1983년 한국 Gallup 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인 개인의 근대화 경향을 저들의 종교성향과 관련지어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한국인의 종교성향이 저들의 근대적 성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Weber식 주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종교인·비종교인을 막론하고, 그리고 종교인이 어느 종교를 지녔느냐를 막론하고 그 개인의 교육정도가 오직 근대적 기질에 가장 유관하다는 발견이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1) “Of the 10 rapidly growing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pinpointed by the OECD because of their competitiveness is causing concern to the developed world, the only ones with non-European cultural origins are the post-Confucians: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Hongkong. These 58m post-Confucians have a share of world exports of manufactures one third larger than that of the 247m Brazilians, Mexicans, Spaniards, Portuguese, Greeks, and Yugoslavs who make up the rest of the OECD list....

...common elements are that post-Confucian economic man works hard and plays hard, buys much, but saves more. He accepts a society stratified by age as well as by ability, perhaps partly because income differentials are insufficient to arouse resentment. He perceives that his prosperity is inseparable from the good of the community and he accepts guidance as to where that lies.

...The non-communist east Asian states have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ir post-Confucian characteristics—self-confidence, social cohesion, subordination of the individual, education for action, bureaucratic tradition and moralising certitude—are a potent combination for development purposes.”

(Farquhar, 1980: 67-72).

번 재검할 터이지만, 문제는 한국인의 종교관에 이상이 있던가, Weber식 주장에 금이 가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시체말로 Weber식 “둘다리도 두드리면 깨진다”고 해야 할까? ⁽²⁾

종교 가운데 유교만을 예로 들었으나, 요새 기독교의 대사회적 발언이 점점 강경해지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그 차극을 받아서인가, 불교 및 여러 신종종교들의 사회적 참여와 발언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다원사회에 종교들끼리의 대화는 물론 대사회적 발언과 실천의 성세는 모두 종교가 사회변동에 공부간에 작용한다는 증좌다. UN대학에서는 향후 몇십년이 걸릴지 모르나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하기 위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가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주관하고 있고, 필자도 1985년 3월 그 기획차 Bangkok의 절집에서 일주일 땅을 흘린 적이 있다. 최근 한국불교는 산속의 기복불교를 벗어나 도시 속의 대중불교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사부대중의 열화같은 기세를 몰아, 금년도 제 3 차 종교간의 대화 모임(Berkeley)에서 아예 “한국의 민중신학과 불교”라는 독립 패널을 갖고 대화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Weber의 둘다리가 계속 두드려지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자본주의의 맹아가 유교의 전통적·전근대적 사회에도 있었다는 논의가 Marx의 경제결정론적 사판에 편승하여 아시아 사회의 정체이론을 반박하는 논의로서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안다. 이 역시 종교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능하는 주요 척도가 됨을 증거하는 것으로 풀이됨직하나, 이 분야의 논자가 있으므로 상론을 피하고 지나쳐 간다.

다음은 사회계층 그 가운데도 애매몽胧한 개념적 “세대”가 어찌하여 한국사회에서 유독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인지 따져 볼 차례다. 더 나아가 과연 세대간의 차이가 종교관의 차이까지 결돌일 수 있는 것인지를 실제 조사

(2) 동기와 행동에 관한 단순공식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 의식의 전변을 주장한 것이 Weber의 이론이라고 Bellah 등은 변호한다.

“The search through Asia for religious movements that here and there have motivational or institutional components analogous to the Protestant Ethic ultimately proves inadequate... The proper analogy in Asia then turns out to be, not this or that motivational or institutional component, but reformation itself. What we need to discern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basic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its ‘underlying value-system’” <Reflections on the Protestant Ethic Analogy in Asia> (Bellah, 1970).

를 통하여 분석·평가하여 나아갈 것이다.

2. 한국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

“세대”란 단순히 10년 간격의 인구구조를 구분하는 인구학적 내지 생물학적 동일연령집단(age cohort)이 아니고, 현재의 사회질서를 유지·관리하는 기성세대와 그에 대해 새로운 창의와 적응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세대, 즉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을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로 보는 사회학적 조작개념이라고 한다. 어느 사회건 유지층과 개변층이 있기 마련이라면, 한국에서만 유독 세대간의 가치관에 차이나 갈등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만도 아닐 터이다. 그러나 저 지난 백여년의 한국 사회와 역사를 볼 때,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하고 그 체제가 안정되어 기성세대가 문화를 전승하고 젊은 세대는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기존질서의 틀을 무리 없이 지속해 나아가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세대마다 혼격한 차이가 있는 청소년기를 지내왔음으로 해서 각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임희섭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의 세대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60세 이상의 해방전 세대를 일제의 잔재로 선반 위에 얹히고, 해방후 휴전에 이르기까지 6·25와 4·19, 5·16을 경험한 오늘의 3, 4, 50세 난 기성세대와, 60~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대중사회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10~20대의 청소년세대와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다.

해방후 휴전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4·19와 5·16을 경험한 오늘의 기성세대는 강력한 방공의식을 내면화하고 “민주적 시민사회와 질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지녀온 세대였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민주화의 이상과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 온 세대이며, 결국은 정치적 근대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근대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다. 아마도 오늘의 기성세대는 좋던 싫던 주로 60년대와 70년대에 진행되어진 산업화의 공파에 대해 책임을 진 세대로서 뒤에 오는 세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오늘의 청소년세대(10대와 20대)는 이미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대중사회화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이미 냉전체제를 벗어나 있고 제3세계의 등장을 경험하는가 하면, 탈산업주의의 이념과도 접촉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이념적 갈등이나 경제적 빈곤, 그리고 후진사회로서의 절망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세대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의 생활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들의 세대의

식은 “사회구조의 평등화와 인간화”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청소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성취한 산업화와 도시화와 대중사회화 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심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제를 시대적 사명으로 설정하려고 있는 것이다(임희섭, 1982:8).

세대가 사회학적 조작개념인 것이, 다른 학문 예컨대 사학이나 인류학을 하는 학자에 의해서 똑같은 현대 한국사회가 세대별로 달리 구획지워지는 것을 보아도 그 임의성이 드러난다. 현대한국을 sub-Confucian이란 수식어로 현대 서구사회의 post-Christian이란 규정에 대비시킨 Tony Michell에 의하면 웃, 집, 자동차 등의 물리적 근대화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적 근대화의 척도로 보면 한국사회는 아직도 유교의 잠재적 영향력 밑에 있는 철저한 가부장적 세대구분사회라 한다. 잠재적 유교사회란 비록 삼강오륜등 유교적 덕목을 교육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대인관계와 생활감정 속에 무르녹아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하는 것(what makes Korean tick)은 흔히 예전 중국인들이 동이족을 일러 “떠들고 웃고 노래하기 좋아한다”고 하듯 민족적 기질(genetic Koreanness)에서 찾지 말고, 현재 한국인의 사회화과정에 나타난 경직된 나이구분별 직분과 그에 상응하는 존경심의 표현따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³⁾ 그리고 나서 제시한 한국사회 의 세대별 사회화과정과 그 수행자의 기술은 임희섭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나, 15년을 간격으로 세대를 구분한 것이 좀 특이하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 유교의 강력한 영향으로 세대별구분이 엄존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의 연구에 공정적 작업가설로 수용할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공자의 자전적 성장과정의 기술에 따라 학문에 뜻을 둔 15세부터 불혹, 지천명, 이순을 거치는 엄격한 나이별, 세대별 직능의 차이를, 한국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없이 수용한다. 불혹은 주견이 뚜렷한 기성세대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불혹에 이르기 위한 젊은이의 고뇌와 방황은 인간이면 주어진 보편적 조건이다. 여러 조건 가운데 발달심리학자들은 젊은이의 가치관 형성이 야말로 젊은 날의 위기를 가늠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절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이구동성 주장한다(조공호, 1979:71-105). 가치관의 확립, 즉 인생의 목표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3) “The ageist hypothesis states that every age cohort is assigned a given role.” (Michell, 1986: 15-33).

기준으로써 종교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견해를 지니느냐? 종교는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궁극적 관심사로서 등장한다. 세대와 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간 모두에게 궁극적 관심사로서 그의 실존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종교가, 우리에게 표피적으로 느껴지는 세대갈등을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기성세대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마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 오는가? 연구자에 따라 조명하는 각도가 다르고, 자료가 다르고, 조사시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그 동안의 연구를 어느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많지 않은 자료들이라 귀중하게 하나하나 검토한 다음 본 자료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보류한 채 논의를 진행시켜 온 감이 없지 않다. 사실 논자의 입장은 반드시 어느 특정 교단에 몸을 두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이 종교인이니 아니니를 따질 수 없다는 편이다.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현재 80년대 청소년의 종교관에 관한 종교인 구학적 의식조사가 반드시 어느 기성종단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저들의 종교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모두 포괄하기로 한다. 종교성향이라는 말로써 얼버무린 논자의 종교관은 무엇인가? 종교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궁극적 관심사요, 동시에 교리, 신화, 윤리, 의례, 사회제도 및 종교적 체험의 여섯 차원을 지닌 복합적 사회 통제기구이다. 이런 설명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세상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포섭될 듯하다. 그렇다. 논자는 억지로 협의의 종교 개념에 얹매어 전후세대의 종교관에 이상 한 종파적 “종교적 색채”를 가미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 사실 종교, 가치관, 인생관, 이념, 사상, 철학 등은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고 구획을 지어서 사용하는 소위 순정학문의 엄밀한 개념들이 아니다. 이미 학문적 엄밀성은 포기했으니, 내친김에 논자의 전후세대에 대한 평소의 관견이랄까 아니면 좁은 편견을 꾀려해 보자. 그리고 그와 같은 편견이 과연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검증되는지 살펴보자.

전후세대, 지금의 대학생들은 한 번도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다. 전후의 폐허에서 선배, 부모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조그만 “풍요”의 온실 속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우유, 주스, 초코렛을 먹으며 TV만화를 즐기지만, 기성세대들의 째째한 인색과 균면에 약간의 동정, 심하면 코웃음치는 세대다. 오직 공부밖에 모르던 암전한 이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지상의 목표인

양 온식구와 전 사회가 바라던대로 대학에 들어오면, 반년이 채 못되어 일부 학생은 최루탄에 절어서 집에 돌아와 부모와 대화는커녕 방문을 닫아걸고 온 세상걱정을 도맡아 한다. 풍요의 온실 속에 자라난 이들 전후세대들의 너무나도 채빠른 변신 내지 종교적 개종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만일 그것이 병곳이라면 어떤 진단과 처방을 써서 치유를 가능케 할 것인가? 생전 당하고만 살아온 전전세대들은 좌불안석, 금지옥엽 키운 자식들의 장래를 놓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 과연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들은 기성세대답게 불혹의 주견을 지니고 저들 신진세대들에게 세상은 이렇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줄 수 있는가? 오히려 기성세대, 당한 세대, 불쌍한 세대는 저 신진세대로부터 저들의 당당한 주장을 서로 고민하며, 서로 모색하며, 서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언뜻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적 명제가 머리에 떠오른다. 오늘의 기성세대들이 젊어서 고민하던 자아의식의 확립이 여전히 오늘의 신진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고민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의 신진세대의 문제는 바로 우리 한국인 모두의 문제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젊은 애들은 되먹이 못했다”는 기성세대의 “현 견”은 여전히 횡행하고, “늙은이들은 주책없이 고리탑작지근한 전근대적 현 견”은 여전히 사로잡혀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고 젊은이들의 불만은 여전히 팽배해 있다.

계통발생을 반추하는 의미에서 과거 백여년간 서구열강 내지 그 앞잡이인 일제 치하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상적 인간으로 묘사한 시대의 영웅, 소위 문화영웅들의 면모를 문학평론가 김현의 분석에 따라 생각해보자. 자아의식 형성에 한몫을 담당하는 자기동일시의 대상으로서 숭배하는 인물로 이순신과 박정희를 1위, 2위로 선정하는 전후세대에게, 소설 속의 주인공이 열마만큼 박진감있게 다가설련지 모를 일이거니와, 자기동일시 대상으로서 만화 속의 엄지, 까치보다야 나을 것이라는 기성세대다운 발상이라고 보아주기 바란다. 한마디로 저들의 인간상은 상처받은 짐승의 괴로운 신음으로 밖에는 들을 수 없는 꺽이고 이즈러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생겨난 못난 자화상들이었다. 60년대초까지의 소설 가운데 20대 전후의 총각처녀들이 역사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주인공의 윤리적 각성과 결단의 순간을 묘사한 문단들을 분석해 내린 결론만 들어보자.

〈무정〉의 이형식의 경우, 합방 직후 한국 젊은이들에겐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교육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세전〉의 이인화는 삼일운동 직전의 조선은 무덤과 같은 곳이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가족제도의 변화와 해방에 대한 기대뿐, 〈상록수〉의 박동혁과 채영신은 30년대 실천적 지성인의 전형으로서 그들에게 지상과제는 조국의 건설과 함께 일과 사랑의 조화요, 〈탁류〉의 남승재는 식민지시대의 우민화교육, 궁핍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무력투쟁에 나서지 못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희귀종이며, 〈삼년〉의 한명주는 해방직후의 혼란에서 민족주의적 방향의 독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화적 혼란 속엔 결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다음 60년대초 4·19가 일어나기 직전 탈고된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형태는 역사에 쫓긴 지식청년의 허무주의를 전형화한 인물이다. 해방때 중학생, 6·25엔 대학생이었던 세대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역사의 희생물로, 해방의 의미를 숙고할 시각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동족들이 총을 들이댄 전쟁을 맞아 상처받은 짐승처럼 발가벗겨진 실존만이 남았던 세대다. 50년대 후반의 역사에 쫓기던 인물들이 역사를 쫓는,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인물들로 바뀌어진 것은 60년의 4·19를 통해서이다(김광남, 1979: 45-68).

과연 4·19를 계기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역사의 의미에 뚜렷한 방향감각을 찾아 지니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논자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한심한 처지를 서로 민망히 여기며,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심정이다. “경무대” 앞길에서 학우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붉은 피를 목도한 4·19세대들이 40장년이 되어 4·19기념탑이 세워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를 찾아, 20년전과 달리 이번엔 매캐한 최루탄을 피해 가며 용케도 1980년 4월 17일 목요일 저녁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거기서 기조발제자 이명현은 한글세대의 자생적, 창조적 문화의 여명기를 소리높이 주창하다가 5·17의 서릿발로 4년의 얼음 속에서 동면기를 경험했다. 그때의 읊음섞인 물음이 아직도 타당한 지 한 번 들어보자. “과연 80년대는 이 땅위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의 전환점일까? 그리고 오늘의 한글세대는 과연 자생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이명현, 1980).

필자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다고 짐작되는 궁극적 관심사의 유형을 지나간 일본 오십년 한국역사의 계통발생적 계기와 연관지어 이렇게 요

약하여 본다. 한국 사상사를 근대화의 시작에서 조명한 다음에 얻어진 짐짓적 결론이라고 해도 좋다.

근대화를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한민족의 발자취와 그들을 한 테 끌치게 했던 지도이념들과의 상관관계를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말의 러시아, 일본, 독일, 중국 및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제국주의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국력을 신장해야 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애국계몽과 개화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1850년대부터 1910년 합병까지의 민족적 지표였다. 독립을 상실한 한국인들의 급선무는 반일항쟁으로 독립하여 자유로이 살 땅을 되찾는 것이었다. 반세기의 치욕 끝에 밖으로부터 주어진 해방, 그뒤의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남북분단 상황에서도 남쪽의 일차적 이념은 민주주의였으나, 이씨조선의 유습을 이은 이승만의 가부장적 독재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4·19혁명에 무너진다. 민주화가 당시 최고의 이념으로 확립되며, 곧 이어 좌절을 맛보는 순간이었다. 5·16 군사쿠데타는 민주화 대신에 경제발전을 지상 목표로 내세우고 “잘 살아 보세”의 가치 밑에 70년대 후반까지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며, 경제전문가들은 한국도 소위 도약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지난친 기대감, 성급한 성취욕이 뒤섞인 한국의 80년대 현재 저 지난 날의 숙명같던 가난이 물러간 지금, 집 안에는 어느 틈에 평화가 가지고 불만에 가득찬 아이와 어른들의 적대감으로 으스스하다. 79년 이후 계속되는 정치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공평한 정의·복지사회의 구현으로 그 불만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정의·복지가 으뜸 가는 이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회의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빈부격차, 남북대결, 노사분규, 자연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인들의 관심사요, 민감한 감수성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저들 자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주어지고 있다. 그뿐이랴. 따지고 보면 저 지난 한민족의 정신적 좌표였던 애국계몽(1850~1910)―자주독립(1910~1945)―자유민주(1945~1960)―경제발전(1961~1980)도 사실상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이념적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아직도 전근대적 괴불이 사회의 유습인 인정과 온정주의, 심하면 제새끼 함합하며 끼리끼리 나눠먹는 물염치를 시민으로서의 공정무사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자파적 파당심을 지양하고 시민적 애국심을 고양해야

겠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반쪽 땅덩이에서 일본의 짜꺼기 대중문화나 모방하고 걸핏하면 외국문자를 놓하여 현학으로 걸치레하는 상술과 학술의 세계도 진정한 문화적 독립을 향유하는 국민이 할 짓이 아니다. 모방적 문화를 벗어던지고, 자생적·창조적 문화를 성취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도 절규하는 민의, 민을 위한, 민에 의한 정부도 아직 요원하다. 무의식중 날풀풀이 노동자나 나이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마당에 “민주”라는 말잔치로 혁국물만 켜고 있기 몇십년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구조적 민주화를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기름값의 고하로 춤을 추는 경제, 수출 중단에 몸살, 노사분규로 몸져 누어야 하는 경제발전이라면, 게다가 그통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날로 숨막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며, 우리가 걷는 땅마저 괴물같은 자동차로 잘리고 굽혀서 “개발”된다면 그런 개발, 발전에 진실로 문제가 있다. 인간을 위한 경제의 발전이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과제다. 이런 생각이 옹졸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숨가쁘게 달려 온 저 지난 백여년의 이념이나 사상이란 것이, 아직도 우리의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더욱이 그 이념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 이런 환경을 만든 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의 유지에 힘을 쓰는 기성세대를 향하여 신진세대가 비판과 질책을 퍼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견진한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며, 오히려 저들의 기개를 복돋아 주고 다시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지 않기를 함께 기원하자.

Ⅱ. 한국청소년의 종교성향 : 조사분석 및 촌평

1. 기존연구의 소개 및 평가

이제까지의 사회조사는 본인의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대부분 모집단의 규모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드물다. 그런대로 귀중한 업적을 설령하여 우리의 시야를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한국 최초의 가치관 연구,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 신구세대논쟁의 자료를 제공한 공적은 김태길, 흥승직 등 대학교수들에게 돌려야 할 것 같다. 1967년 김태길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지식층에 관한 한 새 세대와 묵은 세대의 가치의식에 혁명적인 차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세대에 의식상 혼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반성적 판단을 거쳐서 얻은 시비의 관념과,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는 충동적 욕구로서의 가치관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혼동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윤리학자의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새 세대와 묵은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의 관념과 곁으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있다”는 지적이며, 따라서 두 세대의 대화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우리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까닭에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응색하고 교만한 편견을 버리자고 호소한다.⁽⁴⁾ 종교와 직접 관련된 문항은 없더라도 인생관, 가치관에 관한 본격적 조사의 흐름으로서 지금부터 20여년전의 자료라 귀중하게 생각되는 면 이외에, 자칫 신구세대의 대립을 감정의 차원에서 아니면 정치공작의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작태에 점잖게 정문일침을 주는 교훈이 들어 있는 줄로 안다.

다음 1970년 대구지방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본대학생들과 같은 문항을 던지고 행한 “한국대학생의 종교관”이란 비교연구가 있다. Max Weber의 관심을 한국대학생에게 투사해 본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몇 가지 문항과 그 결과의 분석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근대화 및 경제발전에 촉진제가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대상종교집단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무교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기독교, 천주교는 촉진제로 본다는 사람들이 많고, 불교의 경우 남학생은 저해와 촉진을 비슷하게 보나 여학생은 저해쪽에 기울었으며, 유교는 남녀 공히 저해라고 생각한 수가 훨씬 많고, 유교는 저해요인으로 본다는 학생들이 절대다수였다고 한다. 물론 기독교 및 천주교가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 학생들도 응답자의 3분의 1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미친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한편 일본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한국대학생들이 종교일반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주목되었다. 즉, 일본학생들은 인간의 행복 및 진선미의 추구가 종교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며, 저들은 현실의 물질세계에서 행복을

(4) “세대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란 논문은 1962년 전국의 대학생 1,962명의 모집단에게 70개의 물음으로 구성된 질문서를 내놓고 분석한 결과를 평한 것(김태길, 1969 : 353-363).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한국학생들은 종교에 대해 존경의 염을 갖고 그리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십칠년전의 이야기이다(권규식, 1983 : 343-378). 중국에서 최근에 자아정체감의 척도를 물리적 환경, 중요한 타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생목표 및 이념·종교의 의식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어느 쪽의 영향을 가장 깊게 받는가, 신구세대를 비교한 결과, 과거 전통적 구세대들은 종교·이념 등 의식과 사회적 중요타자의 영향이 자아형성의 중요계기가 되는 데 반하여, 서구등 미국이나 문화 혁명 이후의 중국의 신세대들은 물질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⁵⁾

1980년대의 한국 젊은이들의 의식은 과연 어떠한지, 여전히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며, 학교 뒷문으로 자동차를 몰고 살같이 달아나는 극소수가 대다수가 될 때 한국대학생의 의식도 달라지리라. 83년의 종교의식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하기 전에, 산발적으로 여러 사회의식조사에 끼여서 종교가 언급된 것을 마저 짚고 넘어가자.

사회정치의식의 변화를 추적한 최평길의 1982년도 보고에 따르면, 그 가운데 종교와 관련하여 서구적 사회의식의 요인으로서 기독교를 지목하는 동시에, “대체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종교성향은 점차 어떤 종교이든 종교를 갖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일수록 종교 중에서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동양전래의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30대 이하 젊은 세대일수록 천주교, 기독교 등 서구취향의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서구지향의 기독교를 선봉할수록 합리적·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 한다. 그러나 “연령면에서 10대, 20대가 한국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력면에서 인구 만명당 고교출신 46.2%, 대학 졸업 34.9%, 중졸 10.8%, 국민학교 3.6%, 대학원 수료 3.3%, 무학 1.4

(5) “a new Chinese self is emerging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new Chinese self no longer maintains a continuity with the past... It is more assertive, less accomodating, and less submissive to authority figures than in the past. The new Chinese self is not as strongly anchored on enduring family relations and traditional values as in the past but leans more toward relations built on what appears to be a utilitarian and material basis....” (Cher). Tavistock Publications, New York and London: 252-277, 272 Summary.

% 준으로 되어 고교이상 대학출신이 8할 이상이 되어, 고학력, 젊은 세대, 대도시출신자 등은 한국인의 서구적 사회의식형성에 중요요인으로 등장한다”고 부기하여 종교가 사회의식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다. 특히 60년대와 80년대의 차이 중 특기할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농촌 대 도시의 인구비율이 1965년(4·19, 5·16 이후의 경제개발초기)의 7:3에서 20년만인 1985년에는 그 정반대의 3:7로 반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시화와 소위 서구적 합리성의 발현을 짹지워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젊은 세대의 기독교 신봉자의 증가추세로 보아, 젊은 세대의 비판적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은 한국 사회의식의 기저로 정착할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발언의 결과절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조건절은 필자의 종파적 편향성을 드러내었거나 잘못된 추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어서 “10대 20대의 젊은 세대가 목적추구방법, 범죄인식태도,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식도 변모를 보여서, 목표달성이 여의치 않으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달성코야 말겠다는 의도가 기성세대보다 젊은 10대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것도 기독교의 영향이랄 수는 없지 않은가? 요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금전관계부정사건의 주모 내지 하수인들이 모두 종교인이라는 데서 모모 종교의 관련성을 윤위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추론의 한 걸가지가 아닐런지 의구심을 감출 길 없다. 아무튼 “긍정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학생들은 …불교를 많이 믿는 부모에 비해,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27.6%)에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 하고, 적극적 태도로 생활에 임하려 하며(52.5%), 비교적 개방적인 가정(44.6%)에 돌아오면 가정의 행복을 상당히 누리고(71.3%), 과반수 이상이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66.9%), 살인강도를 제일 심각한 범죄로(64.8%), 기타 탈세, 간첩 및 병역기피를 중죄로 보지만, 부정적 면에서 볼 때, 한국대학생들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배금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과반수 이상(65.5%)이 믿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사회여건이 그들의 활동에 불리하다고 74.1%의 많은 학생이 인식하고 있다.”(최평길, 1982:17-5).

2. 1983년 전국조사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분석

부분적·산발적 종교성향연구를 지양하고 한국 최초로 전국규모의 한국인 종교의식 조사에 나타난 젊은 세대의 종교관을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다음 3

가지 질문에 국한하여 본질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본고의 처음부터 예시로 들었던 한국인의 근대화 성향 중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비교, 다음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는 11가지 항목에 대한 신구세대의 비교, 그리고 각 종교집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특성추출(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등의 순서로 차례차례 따져보기로 한다.⁽⁶⁾

(1) 종교성향과 근대화성향

필자는 한국인의 근대화성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발전에 관한 하바드계획(The Harvard Project on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을 수행한 Alex Inkeles의 modernity에 대한 7가지 징표를 그대로 빌려썼다 (Inkeles, 1969 : 208-225). 즉, 1)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2)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독립, 3) 현대과학/의학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 4) 성취의욕, 5) 정확한 시간관념, 6)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7)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 등인데, 이것을 한국갤럽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물어 보았다.

“다음의 말에 대하여……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까우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 우리나라에는 가급적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2. 가까운 장래에 현대의 학은 불치의 병들을 대부분 고칠 수 있게 할 것이다. 3. 고생해서 남보다 뛰어나기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다. 4. 약속시간보다 20분 정도 늦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5.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6. 나는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 편이다. 7. 자식은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개인의 근대화성향이 응답자의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변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표 1〉을 얻었다. 근

〈표 1〉 근대화 성향과 종교

종교	현대화 성향	상	중	하	계
		전체 (1946)	36.4	34.4	29.3
불교		30.9⊕	33.1	36.0⊕	100.0
개신교		40.6⊕	36.5	22.9⊖	100.0
천주교		38.1	32.3	29.6	100.0
밀지않음		36.6	35.0	28.4	100.0

(6) 본 조사의 결과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간행,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4권으로 나와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대화점수를 상중하 3그룹으로 나누어 응답자의 종교 특성별로 구성비를 본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불교신자와 개신교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개신교의 경우 근대화성향이 강한 집단(상)에 속해 있고, 불교의 경우는 반대로 그 성향이 약한 집단(하)에 상대적으로 많이 속해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 종교인별 근대화성향을 본다면, <표 2>와 같이 국졸 이하에서만 의의있는 차이를 보일 뿐, 그 이외에는 모두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흔히 편향적으로 종교와 근대화 성향만을 따로 떼어 상관지워 본 가정, 즉 “개신교자의 근대화성향이 높고 불교신자는 낮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부연해서 “근대화성향이 종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가정은 허위상관이며, 차라리 “근대화성향은

<표 2> 응답자의 종교별 근대화성향(교육수준은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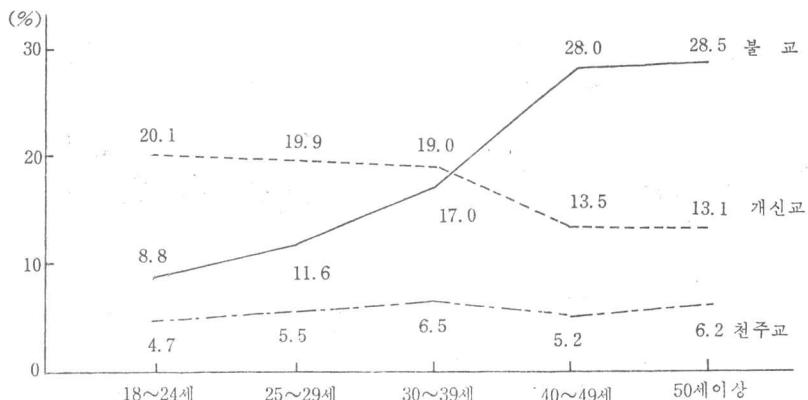
교육수준	현대화 성향		상	중	하	계
	종교	전체				
국졸 이하	전체 (517)	13.3	34.6	52.1	100.0	
	불교 (156)	14.8	30.3	54.9	100.0	
	개신교 (58)	16.6	40.1⊕	43.3⊖	100.0	
	천주교 (27)	13.6	39.2	47.2	100.0	
	비종교인 (277)	11.8	35.4	52.8	100.0	
중 졸	전체 (438)	28.4	39.9	31.7	100.0	
	불교 (91)	29.6	41.9	28.5	100.0	
	개신교 (74)	31.3	39.1	29.6	100.0	
	천주교 (25)	20.8	36.9	42.3	100.0	
	비종교인 (248)	27.9	39.6	32.5	100.0	
고 졸	전체 (610)	50.4	33.4	16.2	100.0	
	불교 (92)	52.5	30.1	17.4	100.0	
	개신교 (124)	46.8	36.7	16.6	100.0	
	천주교 (34)	55.3	23.7	20.9	100.0	
	비종교인 (360)	50.7	34.0	15.3	100.0	
대 졸	전체 (307)	59.4	29.7	10.9	100.0	
	불교 (22)	68.2	18.2	13.6	100.0	
	개신교 (75)	58.4	30.8	10.7	100.0	
	천주교 (24)	60.5	29.6	9.9	100.0	
	비종교인 (186)	58.5	30.6	10.8	100.0	

교육수준과 상관도가 높다”고 말해야 마땅하다.

또한 신구세대의 관념상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라면, 권위로부터의 독립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거기서도 열넷 나이차이로 보아 30에서 39세를 경계로 젊은 층은 총 36%만이 순종을 지지하나, 노년층은 60% 이상이 순종을 지지하는 것을 보아서 “세대차이”를 운위할 수 있을 법 하나, 여전히 교육수준으로 보면 중졸까지는 순종한다는 편이 50% 이상으로, 즉 국졸 67.7%, 중졸 50.7%였다가 고졸만해도 36.7%로 뚜 떨어지고, 대졸 이상이면 30.4%라, 교육을 시킬수록 머리를 바짝 치켜들고 전통적 권위에 항거하는 이른바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세대란 소리를 듣는 모양이다. 근대화경향은 종교차이도, 신구세대차이도 아니고 다만 교육유무에 귀결된다는 결론이다.

세대차이로 귀결되는 한국인들의 종교성향은 종교인의 분포에서 남녀의 차이에 따라 더불어 유의미한 결과가 주목된다. 즉, 여자가 종교를 믿고 있는 비율이 52.7%로 남자 33.9%보다 월등히 높다. 이 경향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해서 50세 이상의 여성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 67.2%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기할만하다. 세대차이가 종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개신교신자와 불교신자의 분포에서 뚜렷한 드러난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신교인의 비율이 높고, 불교인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불교인의 비율과 개신교인의 비율이 뒤바뀌는데 이는 30~40대가 해방전후

〈표 3〉 연령별 종교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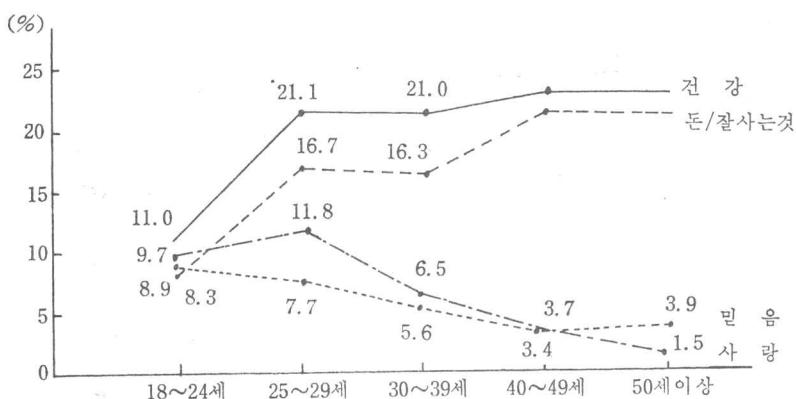
의 세대라는 점, 해방직후 6·25를 계기로 개신교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의 상관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겠다.

(2) 인생관을 둘러싼 신구세대의 비교

평상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응답식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건강(19.8%)과 돈/잘사는 것(16.7%)이 1,2위, 진실/성실한 삶(13.1%), 사랑(6.6%) 그리고 믿음(5.9%)이 각각 3,4,5위이고, 나머지는 자녀양육/교육(4.4%), 인간성(2.1%), 행복(2.0%), 노력(1.9%) 그리고 대인관계(1.5%)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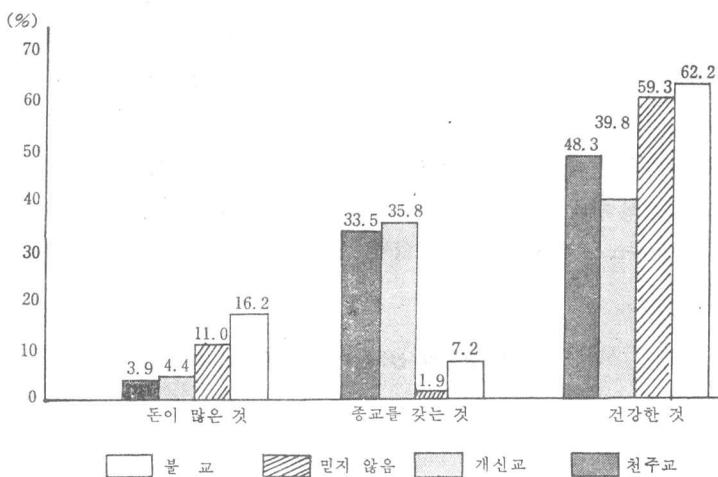
위의 응답을 종교인물로 분석하면 꼭 도토리 키재기로 한국인은 종교인,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는 인생관을 압도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억지로 연령별 반응을 따로 구획지어 보면, 건강과 돈잘벌어 잘살기 등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은 연령이 많아 질수록 지적률이 높아진다. 반면 종교적 이념적 가치관인 사랑, 믿음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지적률이 낮아지니 우리나라는 소위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해야 할 듯 싶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하게 정신적 가치에 더 우위를 두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정도의 차이도 미미하다. 그림으로 그려보자.

〈표 4〉 연령별 살아 가는 데 중요한 것



평상시 인생의 궁극적 관심사로 11개의 해당(1. 좋은 친구가 있음, 2. 여가/휴식시간이 많음, 3. 가정생활의 즐거움, 4. 좋은 직업, 5. 돈이 많음, 6. 종교를 갖는 것, 7. 건강, 8. 남을 돋기, 9. 존경을 받음, 10. 마음의 평안, 11. 신념을 갖고 생활함)을 주고 물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인의 종교는 신구세대 및 종교·비종교인을 막론하고 “건강종교”다. 역으로 유의미한 항목을 골라 종교별로 본 인생의 관심사를 그려보면 〈표5〉를 보면, 건강에 대해 불교인(62.2%)은 개신교인(39.8%) 내지 천주교인(48.3%)보다 높은 지적률을 보이며, 돈에 대해서도 불교인(16.2%)은 개신교(4.4%)이나 천주교(3.9%)보다 높은 지적률을 보인다.

〈표 5〉 종교별로 본 인생의 관심사(유의한 항목만 제시)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도 현세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불교 가운데 무속에 얹힌 기복불교의 영향을 엿볼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한국인 전체를 종교성향별로 확인했을 때, 유교성향 2.30, 불교성향 2.29, 기독교성향 2.10 순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참고해 본다면 한국인 전체의 현세구복적 경향이지 불교인만의 특성은 아닌듯 싶다. 왜냐하면 불교인을 자처한(종교인 전체 43.8%, 그 가운데 불교인은 18.8%, 개신교 17.2%, 천주교 5.7%, 기타 2.10%) 사람들조차 2.08만이 불교 성향이요, 천주교인도 1.93의 불교성향을, 비종교인까지 1.92의 불교성향을 보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여러 종교성향이 중첩되어 있는 한국인을 기질을 어느 한 종교의 특징인 양 이야기하게 만드는 종교조사방법 자체에 무리가 있는 것이다. 종교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문화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적으로 나타난 종교인구수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도 한국의 종교현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전통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교 및 불교 등 동양종교는 배타적 신념체계가 아니라는 점, 둘째로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현대인들은 제도종교를 기피하면서도 종교적 성향을 갖고 생활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윤이흠, 박무익, 허남린, 1985: 343-371). 결국 현세중심적 인생관에 있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3) 종교집단에 대한 태도

종교단체의 양적 성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식자총에서 울려나온지 오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품위없고 무자격인 성직자가 많다는 사람은 64.8%, 전혀 없다, 또는 거의 없다는 17.5%인데, 그 가운데서도 젊은 층은 더욱 비판적이다. 즉, 종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73%, 50세 이상 53.2로 약간 대비가 된다. 그러나 역시 정도의 차이요, 감수성의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 응답율은 66.1%로 미국의 긍정율 55.0%보다 약간 높은데, 역시 교육수준에 높을수록 그 비판도가 강하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아무리 믿어도 교회나 절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보는 제도적 종교단체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부정율 63.8%로 긍정율 23.8%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국락이나 천국에 갈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66.4%가 부정하여,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현대 한국인들의 부정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으나, 거기서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혹시 요새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근로자, 농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종교인의 태도는 어떠한지, 특히 젊은 종교인들에게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실천과 매개되는지 궁금해 여길 분들을 위하여 “……님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들이 근로자나 농민으로 하여금 파업, 데모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물어 보았다. 1983년 현재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간 반대 12.8%, 아주 반

대 75.9%로 반대의 비율이 88.7%로 압도적 다수가 종교인 내지 종교단체의 집단활동지원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좀 더 약하게 종교단체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물어 보았더니,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약간 반대 21.8%, 아주 반대 47.3%, 도합 반대 비율이 69.1%로 종교별, 나이별로 아주 구별없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정종교단체나 젊은 세대를 지목하여 과격행동이니 이를 주도하거나 교사한다는 등의 시사적 발언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확인할 영역밖에 있는 듯하다.

Ⅲ. 요약 : 둘다리의 실상과 허상

이론적 고찰에서 짐작했듯이 여론조사는 우리의 상투적 고정관념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첫째, Weber의 교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한국의 전통종교와 근대화성향을 상관지어 설명하려해도, 별로 뜻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근대화는 어느 전통종교보다 교육경도와 더욱 유관하다.

둘째,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적어도 종교성향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국인 모두가 현세중심적 건강종도다.

셋째, 특히 현재 관심의 촛점인 젊은이의 과격성은 종교단체에 대한 태도에서 여타 세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보수적 경향을 드러내며, 오히려 젊은 세대만 두드러지게 종교의 사회참여에 열성적이라는 시사도 근거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신구세대의 차이에 유념하기보다는 한국인 전체의 근대적 기질을 구조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논자는 신구세대논쟁이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인으로 사용하기에 별반 쓸모없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어차피 사회는 변화하지만 그것이 신구세대의 차이로 설명되기에 너무나 엄청난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더욱 돋보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차원이 얼마나 인간의 사회적 생활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무엇이 사회를 바꾸는 주 원동력이 되는가? 젊은이도, 이념도, 의식도, 아니라면.

참 고 문 헌

권규식

1983 「종교와 사회변동—막스 웨버의 종교사회학」, 형설출판사.

김광남

1979 「근대소설에 나타난 청년의 가치관」, 「청년연구」 제 2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태길

1969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 민중서관.

윤이홍, 박무익, 허남진

1985 “종교인구조사의 방법론과 한국인의 종교성향”, 「한국종교의 이해」, 집문당, (장병길교수 은퇴기념논총).

이명현

1980 “사회발전과 세대의식”, (아카데미하우스대화의 모임, 발제사).

이상은

1966 “한국에 있어서의 유교의 공조론”, 「아세아연구」 91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임희섭

1982 “사회변동과 세대차의 문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세미나보고서 중 기조논문.

정재식

1982 「종교와 사회변동」, 연세대학교출판부.

조궁호

1979 “현대 한국청년의 정체의식”, 「청년연구」 제 2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평길

1982 “사회·정치의식의 변화—사회변동과 세대차이—”, 유네스코 1982년 연구세미나보고서.

현상운

1982 「조선유학사」, 현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인의 여론」 시리즈 4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Bellah, Robert

1970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Harper & Row.

Chu, Godwin C.

“The Changing Concept of Self in Contemporary China: Culture and Self-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 Edited by Anthony J. Marcella, George Devos and Francis L.K. Hsu, New York and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Farquhar, Roderic Mac

1980 "The Post-Confucian Challenge," The Economist, Feb. 9.

Inkeles, Alex

1969 "Making Men Moder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Amercian Journal of Sociology 5.

Michell, Tony

1986 "Generational Change and Confucianism: Organization and Interaction in Korea," Korea Branch, Vol. 61.